

國語 辭典의 發音 表記 補完

허 춘*

차례

I. 서론

II. 본론

1. '표준 발음법'의 문제점
2. 국어 사전 발음 표기의 혼란상
3. 국어 사전 발음 표기의 보완점

III. 결론

I. 서론

우리말 발음의 혼란은 일차적으로 '표준 발음법'에 무지한 데에 있다. 그런 데다 '표준 발음법'에 허술한 점이 많고 사전마다 발음 표기가 서로 다르며 기준이 될 만한 사전도 마땅치 않은 점이, 우리말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한 원인이다. 우리말의 바른 발음 정립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의 '노근리 사건' 보도에서 보인 발음의 혼란상([노근리], [노글리], [노근니] 등)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방송의 바른 발음은 곧 보도의 신뢰성과도 직결되는데, 우리말을 바르게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쓰지 못하는 정도가 너무 심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라 필자는 앞서 방송의 발음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구체적인 예를 적시하며 그 오류를 지적하고 대책을 제시해 본 바 있다¹⁾.

발음 해설서는 자세하지도 않고 그나마 구하기도 쉽지 않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보면, ‘표준 발음법’의 보완²⁾과 이에 따른 국어 사전의 발음 표기는 대단히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이다. 발음 사전의 틀린 점을 지적하여 미비점을 비판하기는 쉬워도 사전을 편찬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다. 이를 모르는 바 아니나 오류를 비롯한 보완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전을 마치 ‘하느님의 말씀’ 정도로 여기는 경향³⁾이 두드러진 우리나라에서는, 사전의 중요성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한글 맞춤법’(1988.1. 문교부 고시)(제1장 총칙 제1항)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으려면 어떤 소리가 가장 정확하고 합리적인가를 먼저 밝혀야 할 것이다. 이처럼 발음은 표기에 앞선다.

이 글에서는 먼저 현행 ‘표준 발음법’ 조항의 미비점 중 몇 예만 간략히 살펴본 후, 국어 사전의 발음 표기가 相異한 실정과 보완할 사항을 검토하여 좀더 효과적인 발음 표기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

1) 許椿a, “放送 言語의 諸問題-發音의 混亂相”, 「인문학 연구」 제6집,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

—b, “放送 言語의 發音 檢討-連音, 硬音”, 「인문학 연구」 제7집,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

—c, “放送 言語의 發音 問題”, 「인문학 연구」 제8집(특집호),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1.

—d, “韓國 放送의 外來語 發音 檢討”, 「동아시아연구논총」 제11집,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01.

2) 이 점은 별론하겠다.

3) 게리 렉터(Gary Rector), “홍보의 박(Hungbo's Gourd)”(안정효, 「가짜 영어 사전」, 현암사, 2000. 877쪽. 再引)

II. 본론

1. '표준 발음법'의 문제점

가. 모음 : 다음과 같은 용언의 어미는 [어]로 발음함을 원칙으로 하되, [여]로 발음함도 허용한다(제22항4))면서 '되어[되어/되여], 피어[피어/피여]'를 예시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상론은 후고로 미룬다. '이오5), 아니오'도 이에 준하여 [이요, 아니요]로 발음함을 허용한다(동항 붙임). 구태여 '이오, 아니오' 같은 예외를 인정한다면 '가시오, 미시오, 사랑이오, 오시오' 등 또한 허용해야 한다. 즉 '이오, 아니오'만 예외이어야 할 필연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없어서 혼란만 가중시킨다.

'우리의[우리의/우리예], 강의의[강:의의/강:이에]'같이, 조사 '의'는 [게]로 발음함도 허용한다(동항 다만4)는 조항 역시 불필요하다.

나. 고저·장단 : 우리말은 두 말이 복합될 때는 장단이 달라지게 되어, '경음'과 함께 우리말 발음에서 가장 혼란한 부분이다. 고저는 언급조차 없는데,6) 보완해야 할 사항이다.

다. 받침 :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옮겨 발음하는 말 중 '맛있다, 멋있다'는 예외를 허용하는 말이다. 즉 [마신타], [머신타]로도 발음할 수 있다(제15항). 왜 '맛있다, 멋있다'만 예외인지 의문이다. 현실음을 반영해서 '맛있다, 멋있다'를 예외로 했으면 '뜻있다' 역시 여기에 포함시켜야 타당하다.

'책 넣는다[챙년는다], 흙 말리다[홍말리다]'처럼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는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해야 하는 경우'라고 명시해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이를테면 '낮 열두 시'를

4) 이하 '표준 발음법'의 조항임.

5) '-이오'라야 바람직하다.

6) 우리말의 고저 장단에 대해서는 주 1)-c. 44~62쪽에서 상론한 바 있다.

흔히 [나덜두시]라고 발음하고 있는데, 당연히 [난덜두시]라야 옳다. '못 이기다, 못 이루다, 못 입다, 옷 입다' 등도 같은 예이다.

라. 동화 : '동화'는 우리말에서 가장 복잡하고 특징적인 발음 현상이다.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ㄹ'을 [ㄴ]으로 발음한다면서, '의견관[의:견난], 임진관[임:진난], 생산량[생산냥], 결단력[결판녁], 공권력[공편녁], 동원령[동:원녕], 상견례[상견네], 횡단로[횡단노], 이원론[이:원논], 입원료[이뵤노], 구근류[구근뉴]' 등의 예를 들고 있다(제20항).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예시한 몇 단어들만을 한정해 지칭하는지 아니면 예로 든 말들 같은 구조로 된 단어를 지칭하는지가 불분명한 점이, 혼란을 야기한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결단력[결판녁], 이원론[이:원논], 구근류[구근뉴]'와 같은 구조를 가진 말 즉 '대관료(貸館料), 법전류(法典類)'가 '[대:관료], [법편뉴]'로 읽히고 있으나 그 근거는 미약하다.

'동화'에서 지나치면 안 되는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인명이나 지명 같은 고유 명사의 발음이다. 여기에 대해 특별한 조항이 없으니 일반적인 발음 법칙에 따라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⁷⁾. 예외를 꼭 둔다면 이런 경우에 두어 주의를 환기하고 명백하게 하여 혼란을 막을 필요가 있겠다.

'-路, -陵, -里(지명)에 대한 예시가 포함되지 않았고, 발음법을 확실히 하지 않아 일어나는 혼란이 적지 않다⁸⁾. '제20항 다만'의 예시 중에 '횡단로[횡단노]'가 있으나, 지명(거리 이름)에도 적용되는지 모호하다. 서울의 '신문로', '남대문로'는, [신문로], [남대물로]라 하기도 하나, '횡단로'의 예에 따른다면 [신문노], [남대문노]라 발음해야 옳을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 동화를 하지 않고 발음하고들 있다. 혼란을 막기 위해 '신문로' 같은 지명을 '다만'의 예에 넣어야 확실해질 것이다.

마. 경음 : '경음화' 항에는 반갑게도 한자어에 대한 조항(제26항)이 있

7) 주 1)-a. 215~216쪽. '이름의 동화와 두음법칙' 항에서 상론한 바 있다.

8) Ibid., '地名' 217~223쪽에서 혼란한 실상을 보였다.

으나, 이 조항만으로는 한자어의 발음을 포괄할 수 없다. 한 예로 ‘불법(不法[-뻬]), 佛法[-뻬]), 사법(私法[-뻬]), 司法[-뻬]’같이 어떤 경우에 경음화하는지 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조항에 따르면 [불뻬], [사뻬] 이라야 하지만 서로 다르게 발음 표기가 되어 있다. ‘사건(事件)⁹⁾, 효과(效果)’ 또한 경음화할 이유가 없는 말이다. 대부분 경음화하고 있는 현실을 따르려면 ‘표준 발음법’에 조항을 만들어 명시해야 할 것이다.

경음으로 발음하는 합성어의 경우(제28항), 예시에 순전한 한자어가 없어서 혼란을 야기한다. 이를테면 ‘-방(房)’은 ‘문간방(門間房)[문간뻬], 셋방(貰房)[세:뻬/셀:뻬], 머릿방[머리뻬/머리뻬](=안방의 뒤로 달려 있는 방), 전방(廳房)[전:뻬] 등 몇 단어만 경음으로 발음하고 ‘소주방(燒廚房), 사랑방(舍廊房)’ 등은 평음으로 발음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조항이나 예시에 명시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

바. 첨가 : ‘큰일’은 [큰닐]과 [크닐]의 뜻이 다르다. 전자는 大事를 뜻하는 일반적인 의미이고 후자는 큰 예식이나 잔치를 말하니, 이런 발음 차이를 예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표준 발음법’(제29항과 동 붙임1)에 의하면, ‘물염치, 물이해, 물인격, 물인식, 물인정, 불연속, 불유쾌, 불이익, 불이행, 불일치, 역이용’ 등은 당연히 첨가되어야 함에도 현실음과 대부분의 사전은 연음을 하고 있다. 한자어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이에 따라 이 말들도 예시해야 한다. 실제의 언어 생활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야 하며 그것이 조항으로 나타나야 한다. 표기와 발음이 따로따로인 단어가 많은 우리말은 더욱 그렇다.

사. 외래어 : 외래어 발음의 혼란은, ‘표준 발음법’에 외래(국)어 또는 우리말+외래(국)어에 대한 논의가 아예 없는 탓이 크다¹⁰⁾. 이 문제를 시급히 정립해야 한다.

9) 「우리말 큰사전」(한글학회, 이하 「한글학회」)에는 [사:건]으로 표기되어 있다.

10) 주 1)-d에서 외래어 발음의 극심한 혼란상과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2 국어 사전 발음 표기의 혼란상

사전마다 발음 표기가 달라 혼란스러운 상황은 대단히 심각한 실정이다. 국어 사전이 전반적으로 '표준 발음법'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발음 표기를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점이다. 이제 그 몇 예를 보이고 이어 보완해야 할 점을 살펴보겠다.

우선, 발음 표기를 따로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 모호하다. 발음 표기가 없으면, '표제어의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는 경우와 순수히 연음화 현상만 적용되는 경우'(「표준 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 '일반적인 경향으로 발음이 어렵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규칙으로 발음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경우'(「한글학회」), '원음과, 표제어의 글자와 다르게 발음되는 말'(「옛센스 國語辭典」(수정판 제1쇄)(민중서림), 「밀레니엄 새로 나온 국어대사전」(민중서관) 등을 말한다. 특히 「한글학회」의 일러두기는 너무 모호하므로 보완해야 한다.

가. **모음** : 모음인 '외'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지 필자 개인적으로는 의문이지만 여기서는 일단 접어 둔다. 대부분의 국어 사전이 '금괴[금괴], 외설[외:설], 외출[외:출]처럼 표기하고 있는데, 기왕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했다면 당연히 '금괴[금괴/금궤], 외설[외:설/웨:설], 외출[외:출/웨:출]로 표기해야 마땅하다. 「국어연구원」, 「표준 한국어발음대사전」(한국방송공사(KBS))의 표기는 이 점에서 바람직하다.

나. **고저·장단·억양·속도** : 논란이 많은, 우리말의 고저는 장단음과 연관되는 것이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평·측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바, 대표적인 예가 '韓國'일 것이다¹¹⁾. 고저 장단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11) Cf. 주 6).

다. 받침 : 한 예로 ‘꺾적꺾적’의 발음은 사전마다 다른데([국찌꺾꺾], [국꺾꺾꺾], [국꺾꺾꺾], [꺾-꺾-] 등) [국찌꺾꺾]이어야 정확하다.

라. 동화 : ‘일단락(一段落)’의 발음 표기는 사전마다 어지러운 정도로 다르다.

	국어 연구원	한글 학회	KBS	백산	민중	동아	금성	비고(표준 발음법)
일단락	-딸-	-딤-	일딤낙	일딸락/ 일딤낙	-딤낙-/ -딸-	-딸-	"	일딸락

1. 국립국어연구원, 「표준 국어대사전」(두산 동아, 1999) 2. 한글학회, 「우리말 큰 사전」(어문각, 1991. ‘한글 맞춤법’과 ‘표준 발음법’의 고시(1988.1.) 이전에 작성된 원고를 출간한 것으로 보이니 발음에는 별 변동이 없으므로 같이 검토한다.) 3. 한국방송공사(KBS), 「표준 한국어발음대사전」(어문각, 1993) 4. 이은정, 「우리말 발음사전」(백산출판사, 1992) 5. 국어국문학회, 「밀레니엄 새로 나온 국어대사전」(민중서관, 2000);-편집국 편, 「옛센스 國語辭典」(민중서림, 1991. 수정판 제1쇄) 6. 「새 국어사전」(동아출판사, 1996. 개정판 3쇄; (주)두산 동아, 2000. 제4판 1쇄) 7. 「국어대사전」, 「뉴에이스 국어사전」(금성출판사, 1991; 1995. 혁신판)(이하, ---은 해당 사전에 표제어가 없음을, ===은 발음 표기가 없음을 뜻한다. ‘비고(표준 발음법)’는 현실음을 고려하지 않은, 규정대로의 발음을 필자가 표기한 것이다. 위의 사전들은 각각 「국어연구원」, 「한글학회」, 「KBS」, 「백산」, 「민중」, 「동아」, 「금성」으로 줄여 표시한다.)

현재의 상황은 두 가지 발음을 혼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표준 발음법’(제20항)에 의거, 당연히 [일딸락]으로 발음해야 한다. 이 말을 ‘일단+락’으로 분석하여 앞쪽의 것이 독립성이 있으므로 [ㄴㄴ]으로 발음한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구태여 분석한다면 ‘일+단락’이어야 타당하다. ‘제20항 다만’에 속하는 말도 아닌데, 「한글학회」와 「KBS」가 [일딤낙]을 표준 발음으로 표기한 이유도 모호하거니와, 방송에서도 이를 지키지 않는다. 근거 없이 두 가지 발음을 적어 혼란만 주는 사전(「백산」, 「민중」)도 바로잡아야 한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일딤낙]이 더 현실에 맞는 발음이라 생각

하지만, '제20항 다만'에 예시된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아니므로 [일팔락]이 옳다. 만약 대부분의 언중이 [일판낙]이라 한다면 발음법 조항의 예시에라도 넣을 일이다.

'작열(灼熱)'의 경우, 현존 사전은 「백산」을 제외한 모든 사전이 뚜렷한 이유 없이 [장널]을 옳은 발음으로 표기하고 있다. 「백산」은 두 가지 발음을 표기하고 있는데 그 근거도 모호하다. '작렬(炸裂)'과 함께 표로 보인다.

	국어연구원	한글학회	KBS	백산	민중	동아	금성	비고 (표준 발음법)
작렬	장널	"	"	"	"	"	"	장널
작열	장널	"	"	장널/ 자결	장널	"	"	자결

마. 경음 : 받침 'ㄱ(ㄱ, ㅋ, ㆁ, ㄷ, ㅌ, ㄴ)'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ㅌ, ㄴ,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제23항). '국밥[국뽕], 곱돌[곱뽕], 샷돈[샷뽕]' 같은 말이다. '국밥'과 같은 구조의 말인 '김밥' 역시 [김:뽕]이라야 한다. 그런데도 많은 사전(「KBS」, 「민중」, 「옛센스 國語辭典」, 「금성판 국어대사전」(금성출판사, 1996. 제2판 제1쇄) 제외)에 [김:밥]으로 표기되어 있다. 더 이해되지 않는 일은 [- /-뽕]으로 표기한 사전도 있다는 점이다(「옛센스 國語辭典」(제4판), 민중서림, 1999). '쌈밥' 또한 [쌈뽕]이라야 정확하다. 유일하게 '쌈밥'이 표제어로 나오는 「국어연구원」은 [쌈밥]으로 표기하였다.

'효과(效果)'의 정확한 발음은 [효:과](「국어연구원」, 「한글학회」, ([효:과]), 「민중」 등)라야 하지만 [효:과]로 나온 사전(「KBS」, 「새 우리말 큰사전」(신기철·신용철, 금성출판사, 1988(제8판)))도 있다. 이견이 있지만, [효:과]를 굳이 경음화시킬 이유나 근거가 없다¹²⁾. 대부분의 사전(「한글학회」 제외)에 '사

12) 주 1)-b. 154쪽.

건'을 [사:견]으로 경음화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견]과 [효:과]는 무슨 근거로 경음과 평음으로 나누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바. 첨가 : '몰염치(沒廉恥)·몰이해(沒理解)'의 발음은 제29항에 따라 [몰렴치], [몰리해]라야 하지만, 사전조차 서로 달라 혼란이 많다. 현존 사전 중 '몰인격'은 「한글학회」만 [-린-]으로 첨가하고 있고,¹³⁾ '몰이해'는 「백산」만 [모리해]로 연음하고 있다. 혼란하여 도무지 정확한 발음을 알기 어렵다.

	국어 연구원	한글 학회	KBS	백산	민중	동아	금성	비고(표준 발음법)
몰염치	===	-렴-	모렴치	"	===	===	===	몰렴치
몰이해	몰리해	"	"	모리해	몰리해	"	"	몰리해
몰인격	-격	-린-	---	모린격	"	-격	"	몰린격
몰인식	모린식	-린-	모린식	"	"	"	"	몰린식
몰인정	모린정	-린-	모린정	"	"	"	"	몰린정

규정과 현실음의 차이겠지만, 대개의 사전이 '불여우, 불이익, 불이행'은 첨가되고, '불연속, 불완전, 불유쾌, 불이득, 불인가, 불인정, 불일치' 등은 연음되는 것으로 표기하고 있다. 문제는 규정(제29항: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나, 너, 뇨, 뉴]로 발음한다. 이 때 'ㄹ'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 음은 [ㄹ]로 발음한다.)과 예시('들일[들릴], 불여우[불려우], 설익다[설릭따], 휘발유[휘발류]' 등)가 소루한 데다 사전마다 발음 표기가 다르다는 데 있다. 규정을 만들고도 단어마다 사정하는 식이면 이 규정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13) 이 경우 '격'의 발음이 [격]인지 [꺾]인지 모호하므로 혼란을 더하게 된다. 「한글학회」는 '일반적인 경향으로 발음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 발음 표기를 생략했기 때문이다. 사전의 표기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점은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제29항 붙임1’의 예 중 ‘설익다[설릭따]’의 ‘설’과 ‘휘발-유[휘발류]’의 ‘유(油)’는 단독으로 설 수 없는 말이다. 그렇다면 ‘불요(不要, 不撓), 불의(不意, 不義), 불인(不人), 불임(不妊)’ 등은 또 그렇다 쳐도, ‘불운(不運), 불인(不仁)’ 등은 왜 연음이 되는지 종잡기 어렵다¹⁴⁾.

‘百分率’은 ‘한글 맞춤법’의 ‘제11항 붙임1 다만’에 따라 ‘백분율’로 표기하는데, [백뽀늘]로 첨가시켜 발음한다(「국어연구원」, 「KBS」, 「백산」, 「민중(옛센스 국어사전)」, 「동아」, 등). ‘백분+율’로 구성된 이 말에 ‘표준 발음법’(제29항)을 적용하면 [백뽀늘]이 옳다. 「한글학회」와 「금성(국어대사전)」, 「민중(국어대사전)」에는 발음 표기가 없으니 연음하라는 뜻이겠다. 틀린 것이지만, ‘백+분율’로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백부늘]이 된다. 이렇게 혼동할 만한 말은 ‘표준 발음법’에 예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전마다 다른 발음은 우리말에 커다란 장애이다.

‘악영향(惡影響)’의 발음은 당연히 [안녕향]이라야(제29항) 하지만 사전에는 [아경향]으로 표기하고 있다. 「한글학회」만 ‘악영:향[-녕-]’이다.

‘연잇다(連-)’는, [연닐따](「국어연구원」, 「KBS」)와 [여닐따](「한글학회」(발음 표기 없음), 「민중」)가 사전마다 다르게 나오는 실정이다. ‘물인격, 연잇다’에서 알 수 있듯이, 사전의 발음 표기는 번거롭더라도 모든 글자를 다 적어야 바람직하다.

‘일이(一二)’를 [이리/일리](「민중」)나 [이리](「국어연구원」)로 읽은 것은, 근거도 없거니와 현실음을 반영한 것도 아니어서 이해하기 어렵다. 「한글학회」에는 ‘일이:[-리]’로 나오는데, 제2음절 이하에 하는 장음 표시는 별 의미가 없다. [일리]라야 맞다.

‘잘 익다’와 같은 구조의 ‘잘 입다’ 같은 말은, 첨가를 하지 않고 사전마다 [자립따]로 연음하라 하고 있으니(「한글학회」에는 발음 표기가 없으니 연음하라는 뜻이겠다), 바른 발음의 정립이 참으로 시급하다. 게다가 ‘잘 입다’가 표제어로 나온 사전은 모두 이 단어를 붙여 쓰고 있는데 반해,

14) Cf. op. cit. 137~139쪽.

‘표준 발음법’(제29항 붙임2)에는 ‘잘 입다’로 띄어쓰고 있으니, 더욱 혼란스럽다¹⁵⁾.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니 첨가되어야 옳다.

‘힘입다’의 정확한 발음은 [힘닙따]이나 사전마다 발음 표기가 다르다. 대부분의 사전에 ‘힘있다, 힘없다’는 [히밋따], [히몹따]로 표기하고 있으니, 음운이 첨가되는 데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표준 발음법’(제29항)에 의하면, ‘힘있다’는 [힘닙따]로 발음해야 한다.

	국어 연구원	한글 학회	KBS	백산	민중	동아	금성	비고(표준 발음법)
힘입다	힘닙따	-닙-	히밋따	히몹따	힘닙따	"	힘닙따 (-닙-)	힘닙따

‘제29항 다만’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발음하되, 표기대로 발음할 수 있는 말이 예시되어 있다. ‘이죽-이죽[이중니죽/이주기죽], 야금-야금[야금나금/야그따금], 검열[검:넬/거:멸], 율랑-율랑[율랑놀랑/율랑율랑], 금융[금늑/그똥]’ 등이다. 그런데 ‘검열(檢閱)’을 「민중」(‘옛센스 국어사전(수정판 제1쇄)’)은 [거:멸]로만, 「민중」(밀레니엄 새로 나온 국어대사전)은 [검:넬]로만 표기하고 있다. 필자가 ‘검열’의 발음이 [거:멸]이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표준 발음법’에 따라야 할 사전이 자의적으로 표기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그렇다고 사전의 ‘일러두기’에서 이 점을 단서로 한 것도 아니다. 하루빨리 시정해야 한다.

‘제29항 붙임1’에, ‘ㄹ’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 음은 [ㄹ]로 발음한다면 예시하고 있는 말 중 ‘유들-유들[유들류들]’이 있다. 「한글학회」, 「KBS」 등은 [유들류들]로 표기하고 있으나 [유들류들/유드류들] (‘국어연구원」, 「민중」 등)로 나온 사전도 있으니, 실로 참담하기까지 한

15) Ibid., 144쪽에서 상론한 바 있다.

실상이다. 필자는, 일관되고 합리적인 발음 기준과 그 적용이 절실하다는 점을 말하려는 것이다. 이 말들의 사전 표기를 다음에 표로 보인다. 도무지 기준도 없고 '표준 발음법'을 지키지도 않으며, 허용 발음을 먼저 내세우기도 하는 혼란을 보이기 위해서이다.

	국어연 구원	한글 학회	KBS	백산	민중1'	민중2	동아	금성	비고(표준 발음법)
야금 야금	-금나/ -그마-	-나	야금 나금	야금나 금/ 야그마 금	---	===	-금나 -/그 마-	-나/ -그마 -	야금나금/ 야그마금
야옹 야옹 ²	-나	---	---	---	---	---	===	---	야옹야옹
야죽 야죽 ³	-중나/ -주가-	-나	---	야중나 죽/야 주가죽	-중나/ -주가-	-나	-중나 / -주가 -	-중나 / -주가 -	야주가죽
올랑 올랑 ⁴	-랑놀/ -랑을	-놀	올랑 놀랑	올랑놀 랑/올 랑올랑	-/ -놀	===	-놀/ -을	"	올랑놀랑/ 올랑올랑
이기죽 이기죽	===	-나	이기 중니 기죽	이기중 니기죽 /이기 주기기 죽	-주가/ -중나	===	===	-중니 -/주 가-	이기주기 기죽
이죽 이죽 ⁵	-중니/ -주가-	===	이주 기죽	---	-중니/ -주가-	===	-중니 / -주가 -	-중니 / -주가 죽	이중니죽/ 이주기기죽

1. 민중1은 「옛센스 국어사전(민중서림, 제3판, 1991)」을, 민중2는 「밀레니엄 새로

나온 국어대사전(민중서관)을 말한다. '동아'는 「새 국어사전(제4판)」을, '금성'은 「금성 국어대사전(운평어문연구소편, 제2판, 1996)」을 말한다.

2 '야옹야옹'은 '제29항 다만'에 없는 말이나, 「한글 맞춤법 사전(국어교육연구소편, 한진문화교연, 1998)」의 풀이(1570쪽)에는 '야옹야옹'은 'ㄴ' 음이 첨가되고, '이기죽이기죽'은 첨가 없이 발음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어연구원」은 첨가해서 발음하고 있고, 「동아」는 연음하고 있다. 이는 발음법 조항이 명료하지 못해 나온 일이다. 즉 '다음과 같은 말들이 '예시한 말들만' 가리키는지 '예시한 말들과 같은 구조를 가진 말들'인지가 불분명하다. 필자의 견해로는, '다음과 같은 말들만'에 의적으로 발음하되, '큰말·작은말·본디말·준말도 이에 준한다.'고 명시하면 혼란을 피할 수 있다고 본다. 위에서 보인대로 '이기죽이기죽'의 발음 또한 '연음, 첨가, 둘 다 인정'의 세 가지로 사전마다 들쭉날쭉인 실정이다. 위의 도표에 보인 말들은 '다만'의 예시에 넣어야 할 것이다.

3 '야기죽야기죽'의 준말이며 '이죽이죽'의 작은말임.

4 '올랑올랑'은, 몸의 일부를 가볍게 흔들며 자꾸 움직이거나 출씩거리는 모양 즉 올랑거리는 꼴을 나타내는 부사이다. 「백산」에는 표제어로 '올랑올랑'이 나오지만 발음 표기는 [올랑틀랑/올랑올랑]인데, 같은 편자의 「최신 표준어·맞춤법 사전(백산 출판사, 1995)」의 표제어가 '올랑올랑'인 것은 誤記인 듯하다. 「민중1」의 표제어가 '올랑올랑'인 것도 잘못된 듯하다.

5 '이기죽이기죽'의 준말임.

'규정 따로 사전 따로, 사전 따로 말 따로'인 단어가 많은 데다, 첨가해야 할 때는 안 하고 연음해야 할 때는 첨가하는 일이 많다. 그리고 사전은 당연히 원칙적인 발음을 먼저 적어야 한다. 경음·첨가 현상을 중심으로 규정과 현실이 사전마다 다른 실상을 표16)로 보인다.

16) Ibid, 138쪽.

	국어 연구원	한글 학회	KBS	백산	민중	동아	금성	비고(표준 발음법)
덧신다	덧신따	덧산다 [-따]	더씬따	덜씬따	"	"	덧산대- 때	덜씬따 (23항)
덧양말	던냥말	"	"	"	"	"	"	던냥말
덧없다	더덜따	덜-	더덜따	"	덜업따	"	"	더덜따
덧입다	던닙따	-닙-	던닙따	"	"	"	"	던닙따
덧저고 리	덜쩌고 리	===	더쩌고리	덜쩌고리	"	덜저 고리	덜쩌고리	덜쩌고리 (23항)
맨입	맨닙	"	"	"	"	"	"	맨닙
몰염치	===	-렴-	모렴치	"	===	===	===	몰렴치
몰이해	몰리해	"	"	모리해	몰리해	"	"	몰리해
몰인격	-격	-린-	---	모린격	"	-격	"	몰린격
밀수입 (출)	밀쑤입 (출)	"	"	"	"	"	"	밀쑤입 (출)
불법 (不法, 佛法)	불법	"	"	"	"	"	"	불법
불려우	불려우	-녀-	불려우	"	"	"	"	불려우
불연속	부련속	===	부련속	"	"	"	"	불련속
불요 (不要, 不撓)	부료	===	부료	"	"	"	"	부료
불유쾌	부류쾌	===	불류쾌	부류쾌	===	===	===	불류쾌
불이익	불리익	-리-	"	부리익	불리익	"	"	불리익
불이행	불리행	===	불리행	부리행	불리행	"	"	불리행
불릴치	부릴치	===	"	"	"	"	"	불릴치
역(驛) 이어달 리기	영니어 달리기	-니-	여기어 달리기	"	"	"	영니-	영니어달 리기
역이용	여기용	-니-	"	"	"	"	"	영니용

사. 외래어: '표준 발음법'의 규정이 없는 탓이겠지만, 외래어의 발음

표기가 없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단순한 단어 뿐 아니라 다른 말이 첨가될 때의 발음도 명기해서 혼란을 막아야 한다. 물론 이에 앞서 발음법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이를테면 ‘테헤란로’는 앞에 외국(래)어가 붙어서인지 방송이나 일반인이 모두 [테헤란노]라 하는데, 이런 말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다.

3. 국어 사전 발음 표기의 보완점

가. 모음 : 앞에서 든 ‘금괴[금괴/금궤], 외설[외:설/웨:설], 외출[외:출/웨:출]’의 예에서 본 것처럼 당연히 허용하는 발음의 표기도 해야 한다. 물론 이 때 허용 발음은 뒤에 표기해야 한다.

‘되어[되어/되여], 피어[피어/피여], 이오[이오/이요], 아니오[아니오/아니요]’를 허용하고 있으니, ‘가지어, 괴어, 뇌어, 외어, 죄어, 가시오’ 등 같은 말의 발음도 사전에 밝혀주어야 한다. 표제어로 올라 있지 않으면 활용형의 발음을 따로 밝히든지¹⁷⁾ 예문에서 발음 표기를 해야 한다.

나. 고저·장단·억양·속도 : 현재의 상황은, 장단은 고사하고 고저에 대한 인식이 너무 희미해져 있으며, 억양이나 속도 또한 뚜렷한 기준도 모호하고 왜곡되고 있다. 우리말은 두 말이 복합될 때는 음의 長短이 달라지게 되므로 사전에서 모든 말에 장단음 표기를 일일이 해야 한다. 고저까지 표시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서¹⁸⁾ 아울러 표기해야 지침이 되는데, 완벽한 사전이라 할 것이다.

제2음절 이하에 장음 표시를 하는 것은 현행 ‘표준 발음법’과 언어 현실을 볼 때 무의미하고 불필요하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말은 첫음절에서만 장음으로 발음된다.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첫음절에서만 긴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17) 이 점은 「국어연구원」이 참고된다.

18) 이 점은 「고저 장단의 사전 표시 시안」(손종섭, 「우리말의 고저장단」(정신세계사, 1999), 286~291쪽)을 참고할 만하다.

때문이다(제6항).

영어의 악센트(accent)와 달리, 우리말의 강세는 말하는 이의 의도에 따라 특정한 단어에 온다. 단어에 한정해 본다면, 우리말은 대체로 첫 음절에 강세가 주어진다. 고저와 장단 그리고 이에 따른 강세는 같이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저음과 장단음의 정립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사전의 일러두기 또는 부록에라도 제시하여 바른 말법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받침 : ‘ㅎ’ 받침을 예로 들면, ‘ㅎ’ 음이 생략되는 예도 발음법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제12항). ‘흔히, 꼼꼼히’는 ‘제12항’과 전혀 무관한 데도 불구하고 ‘ㅎ’ 음을 아예 발음하지 않는 일이 많다. 이 상태로 내버려 두면 어색하게 글자대로 끊어 읽는 현상이 더욱 만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표제어마다 발음 표기를 하는 일이 바람직하다.

라. 동화 : ‘못 이기다·못 이루다·못 일어나다·못 읽다·못 입다·못 잇다’ 등은 동화를 거쳐 첨가가 되는 말이므로 ‘웃 입다[은넙따], 잘 입다[잘립따]처럼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다(제29항 붙임2). ‘수학 여행[수항녀행], 옛이야기[엔:니야기], 웃 입다[은넙따] 등 유사한 예가 많다¹⁹⁾. 발음이 많이 틀리는 말은 표제어 또는 예문에서 발음을 명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 경음 : ‘표준 발음법’은 경음으로 발음해야 할 경우를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제23항~28항). 그런데도 국어 사전은 이를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호한 ‘표준 발음법’ 탓도 있지만, ‘불법[不法[-뽵], 佛法[-뽵], 사법[私法[-뽵], 司法[-뽵], 사건(事件), 효과(效果)’에서 보듯이, 근거 없이 경음화한 발음 표기는 재고해야 한다.

‘안간힘, 인기척’ 등을 평음으로 발음하는 것은 물론 ‘표준 발음법’(이 경우는 제23항)에 무지한 탓이다. 그러나 전문 방송인들도 많이 틀리므로 단어마다 발음 표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 이러한 혼란에 대해서는, 주 1)-a. 225~228쪽에서 구체적으로 예시한 바 있다.

바. 첨가 : ‘김 양(嬢), 삼연패(三連敗·三連覇), 옷 입다’ 등은 발음이 자주 틀리는 말이므로 예문에서라도 발음 표기를 해야 한다. ‘그럼요·-르걸요·암요’ 등처럼 첨가하지 않고 연습해야 할 말도 마찬가지로 있다.

‘이기죽이기죽’의 발음 표기에서 보듯이 ‘연음, 첨가, 둘 다 인정’의 세 가지로 사전마다 들쭉날쭉인 실정이다. 이 상태로라면 그야말로 十人十色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큰말·작은말·본디말·준말’ 등의 발음 또한 명기해야 한다.

사. 준말 : ‘한글 맞춤법’(제11항 붙임3)에는 “준말에서 본음으로 소리나는 것은 본음대로 적는다.” 하고 ‘국련(국제연합), 대한교련(대한교육연합회)’의 예를 들고 있다. 그렇다면 ‘자유민주연합’의 준말은 본음대로 적어 ‘자민련(自民聯)’이라야 한다. 그런데 뭐라고 읽어야 바른 발음인가? ‘표준 발음법’에는 이런 경우의 조항이 따로 없다. ‘제20항 다만’에 속하는 말도 아니다. 그러므로 굳이 동화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²⁰⁾. 따라서 ‘자민련’은, 대부분 [자민년]이라 하지만, [자밀련]이 바른 발음이다. 이런 경우의 발음이 사전에 표기되어야 한다.

아. 이어지는 두 말 : 단어끼리 이어지는 두 말이 이어지거나 조사, 접두(미)사가 붙을 때의 발음 조항과 예시가 없거나 소홀하다. 그러나 사전은 예문에서라도 이를 명기할 필요가 있다.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는 ‘음의 동화(제18항 붙임)’, ‘음의 첨가(제29항 붙임2)’에만 나온다. 경음화에도 유사한 조항(제28항)이 있으나, 예시한 ‘문고리[문꼬리], 눈동자[눈똥자], 강가[강까]’ 등만으로는 포괄할 수 없다. ‘길 잃은, 곧 이어’(국어연구원)에는 표제어로 나오는데 붙여 썼음, 봄 방학’ 같은 말에 대한 사전의 발음 표기가 절실하다.

자. 외래어 : 우리말 발음에서 가장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것은 외래어이다. 외래어도 어차피 우리말이니 부가 조항이나 예시가 없더라도 ‘표준 발음법’을 준용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발음해야 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논의나 합의도 없다. 게다가 ‘외국(래)어+우리말(우리말+외국(래)어)’의

20) Ibid., 229쪽.

경우는 더욱 난감하다. 하루빨리 이를 정립하여 사전에 외래어의 발음 표기를 해야 한다. 특히 우리말(접두·접미사, 조사 등)과 결합되었을 때의 발음 표기를 해야 한다.

외래어는 이미 우리말에 편입되었으므로 그 발음도 우리말법에 맞게 해야 타당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한 예로, ‘아웃렛(outlet)’은 최근의 국어 사전에 없는 말이니 외국어라 할 것인지 모호하지만, 표기나 발음에서 ‘아웃렛[아우렌]’이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간판에도 ‘아울렛’이라 적은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필자는 ‘곤로(焜爐, こんろ), 라면(拉麵(麪)·老麵(麪)), 옷 로비(lobby), 에프엠(FM), 온라인(on-line), 카페(café), 패션(fashion), 테헤란로(Teheran路), 핀란드(Finland)’ 등을 통해 외래어 발음의 문제를 검토한 바 있다²¹⁾. 우리말법을 따르지 않고 글자대로 읽어야 한다면 외래어가 아니고 이미 외국어이다. 작금의 혼란은 외래어의 발음을 사전에 명기하지 않은 탓도 크다고 생각한다.

III. 결론

사전들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발음 표기를 보면 국어 사전 편찬자들이 너무 무책임하다고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무엇보다, ‘표준 발음법’을 무시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사전마다 달리 한 발음 표기는 시급히 수정해야 한다. 사전 편찬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풍조가 있지 않은가 우려된다. 사전은 자신의 견해를 발표하는 장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을 널리 알리고 표준을 세워 바른 언어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는 길잡이이다.

이제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 중 몇 가지를 강조한다.

1. 사전의 발음 표기가 너무 혼란하다. 사전은 언어 생활의 지침이므로 소신껏 적는 것이 아니다.

21) 주 1)-d.

2. 당연히 원칙적인 발음을 먼저 적고, 허용하는 발음은 뒤에 적어야 한다. 이를 거꾸로 적은 사전은 얼른 시정해야 한다.

3. 우선 '표준 발음법'을 보완해야 하지만, 조항에 의거해서 적되 모든 표제어에 글자마다 발음 표기를 해야 한다. 나아가 예문의 '이어지는 말'까지 발음 표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기와 발음이 따로따로인 단어가 많은 우리말은 더욱 그렇다. '12·12' 같은 말도 표제어로 올리고 발음 표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눈익다, 몰린격, 일단락, 힘없다'를 [-닉-], [-린-], [-딴-], [-업-]이라 표기한 사전은, 이를 각각 '[눈닉다], [몰린격], [일딴락], [힘업다]'로 발음하란 말로 오도하게 한다. '청산리'에 발음 표기가 없으면 [청살리]인지 [청산리]인지 종잡을 수가 없게 된다.

4. 현존 사전의, 발음에 대한 일러두기가 너무 모호하다. '표제어의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는 경우와 순수히 연음화 현상만 적용되는 경우'(『국어연구원』), '일반적인 경향으로 발음이 어렵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규칙으로 발음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경우'(『한글학회』), '원음과, 표제어의 글자와 다르게 발음되는 말'(『민중』) 등은 실제의 발음에 적용하기 쉽지 않다. 특히 『한글학회』의 일러두기는 너무 모호하므로 보완해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표제어(예문의 이어지는 말, 활용 포함)의 발음을 표기해야 혼란이 없다.

5. 고저 장단을 표시해야 한다. 사전은 바른 발음을 할 수 있도록 자세히 표시해야 하고 효과적인 표기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제2음절 이하에 하는 장음 표시는 현행 '표준 발음법'과 언어 현실을 볼 때 무의미하고 불필요하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말은 첫 음절에서만 장음으로 발음된다.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첫음절에서만 긴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제6항).

6. 표제어 선정과 직결된 일이지만,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말에 대한 발음 표기가 꼭 필요하다. 이를테면 '낮 열두 시,

봄 방학' 같은 말의 발음은 사전에서 밝혀줘야 한다.

7. '표준 발음법'의 보완이 앞서야 하는 일이지만, 특히 '不法, 佛法, 私法, 司法' 같은 한자어에서 경음화하는 말에 대한, 확실한 기준과 이의 적용이 아쉽다.

8. 특히 '-路, -陵, -里' 같은 지명과 인명 같은 고유 명사에는 발음 표기가 절실하다. 일례로 '학여울역'(서울의 지하철 역명)은 [항녀울력]이라야 하는데 방송에서나 도로 표지판도 틀리게 한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9. '자민련(自民聯)' 같은 준말의 발음도 모두 표기해야 한다.

10. 먼저 '표준 발음법'에서 시급히 거론해야 할 일이지만, 외래어에 대한 발음 표기가 절실하다.

위에 든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언중(言衆)에게 영향력이 막대한 언론에서도 사전을 기준으로 정확한 발음을 구사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말이 맑아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특히 'KBS'의 발음 표기는 면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이 글을 계기로 '표준 발음법'과 함께 국어 사전의 발음 표기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산소 같은' 우리말을 들어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연구원, 「표준 국어대사전」, (주)두산 동아, 1999.
국어국문학회, 「밀레니엄 새로 나온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2000.
국어교육연구소 편, 「한글 맞춤법 사전」, 한진문화교연, 1998.
신기철·신용철, 「새 우리말 큰사전」(제8판), 금성출판사, 1988.
안정효, 「가짜 영어 사전」, 현암사, 2000.

- 운평어문연구소 편, 「그랜드 국어사전」(초판 제4쇄), 금성출판사, 1996.
- 편, 「국어대사전」(제2판 제1쇄), 금성출판사, 1996.
- 이은정, 「우리말 발음사전」, 백산출판사, 1992.
- , 「최신 표준어·맞춤법 사전」, 백산출판사, 1995.
- 편집국 편,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1991.
- 편집국 편, 「뉴에이스 국어사전」(혁신판), 금성출판사, 1995.
- 편집국 편, 「새 국어사전」(개정판 3쇄), 동아출판사, 1996.
- 편집국 편, 「새 국어사전」(제4판 1쇄), (주)두산 동아, 2000.
- 편집국 편, 「옛센스 國語辭典」(제3판, 수정판 제1쇄), 민중서림, 1991.
- 편집국 편, 「옛센스 國語辭典」(제4판), 민중서림, 1999.
- 한국방송공사(KBS), 「표준 한국어발음대사전」, 어문각, 1993.
- 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1991.
-
- 손종섭, 「우리말의 고저장단」, 정신세계사, 1999.
- 許椿, “放送 言語의 諸問題—發音의 混亂相”, 「인문학 연구」, 제6집,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
- , “放送 言語의 發音 檢討—連音, 硬音”, 「인문학 연구」, 제7집,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
- , “放送 言語의 發音 問題”, 「인문학 연구」, 제8집(특집호),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1.
- , “韓國 放送의 外來語 發音 檢討”, 「동아시아연구논총」, 제11집,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01.